

산업구조 다각화 투자활동 전개

전북도, 올해 기업유치 135개사·4600일자리 창출 목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로 탄력 기대

전북도는 2019년 135개 이상 기업유치를 위해 연초부터 열정을 다해 투자유치 활동을 해오고 있다. 기업유치는 총성만 울고 있는 차세대 체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도 같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전북도는 민선6기 이후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했고 올 해도 135개사, 4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뛰고 있다.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타 면제가 확정됨에 따라 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 등 핵심 SOC가 확보되고 동안 투자유치의 제약 요소가 해소되어 다양한 제조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

되는 질 좋은 상용 일자리를 증대시키고 산업구조를 다각화하여 전북의 산업 체질 개선에 첨병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핵심기업 유치를 위해 시군, 지역혁신기관, 연구·출연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한다.

미래 혁신성장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유치지원단을 신규로 구성하고 성장동력산업 투자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타깃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와 시군 간 기업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유치 공조 활동을 강화해 친체된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기업유치 활

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투자협약 기업 조기투자 유도를 위해 산업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최대 확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MOU 체결 기업의 조기 안착을 이끈다.

전북도는 2018년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최우수 기관에 선정(4년 연속)되어 인센티브로 국비 보조율 5%를 상향 지원받아 올해 40억원 이상의 지방비 절감이 가능하고 올해도 기업에 지원되는 투자보조금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5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에 도전한다.

도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자동차 전자산업, 재생에너지, 바이오, 탄소

식품 등 미래 성장동력·주력산업 분야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와 시군은 물론 중앙 정치권 등과 연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할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3~4년이 소요되므로 MOU 체결 기업의 조기투자 유도를 위한 투자협약 기업 해피콜 AS 운영을 강화해 기업별 전담직원이 자금지원, 각종 민원,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관리에도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교육 패러다임 '유아 중심으로'

도교육청, 유치원 누리과정 개정 따라 개정 고시 등 진행

2020년부터 개정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된다. 유치원 누리과정 개정에 따라 올해 개정 고시와 함께 시·도 담당자 및 관리자 연수, 개정 누리과정 컨설팅 등이 현장에 자연스럽게 안착될 수 있도록 중앙 연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자연스럽게 안착될 수 있도록 중앙연수 지원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유아·놀이중심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역량강화 워크숍, 관리자

연수, 개정누리과정 연수 등(5개 과정, 7,870만원)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교원들이 자율적·지속적으로 교육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월(연 8회) 개정 누리과정 현장 적용력 신장 연수를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 주관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 주최 중앙연수(9개 과정, 230명)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새만금유역 하수도 인프라

올해 총 1572억원 투입

전북도, 전주 등 7개 시군 102곳

전북도가 새만금유역 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9년도 전주 등 7개 시군 102개소에 총 1,572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전북도는 새만금유역 생활하수 적정처리 등 수질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로 확충 및 정비 등 전폭적 투자를 통해 2010년 대비 하수도 보급률 11.5%, 하수관로

보급률이 9.6% 증가하여 전북도의 열악한 하수도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다.

임민영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청정한 물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새만금유역 물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도에도 환경기초시설 74개소, 하수처리장 확충 등 6개 사업에 올해(1,572억원)보다 528억원이 증가한 2,098억원(국비 1,394, 지방비 704) 예산(잠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도, 장애인활동지원 등 4개 서비스부터 단계별

전북도는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부터 단계별로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종전의 1~6등급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고,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는 것이다.



설 민심 전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가운데)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설날 민심을 전달하고 현안 및 당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1988년부터 도입된 장애 등급제는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장애등급을 부여하여 등급에 따라 장애인서비스 제공 기준이 되어 왔으나, 장애인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도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가 결정됐다.

전북도,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 아동수당 지급

도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혼란·혼선을 겪지 않도록 중앙정부 정책에 맞추어 시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남은 기간 동안 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는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 재산이 전체 2인 이상 가구의 90% 이하 아동에 한해 월 10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올해부터는 소득 재산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만 6세 미만(0개월~71개월)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지난해 수당 지급이 제

외됐던 5천여명의 아동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준에 수당을 받아 오던 아동들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지난해 신청은 했으나, 소득 기준 초과로 제외됐던 아동들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작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k.jr.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개정된 법 공포일 1월 15일 이후에 신청한 아동과 지급 제외됐던 아동들은 2019년 1월부터 소급해 4월에 첫 지급된다. 오는 9월부터는 지급연령이 상향돼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관련 홈페이지(www.ihappyy.or.kr) 및 도청 여성청소년과(063-280-4788) 등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현장 계도

전북도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북도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1월부터 3월까지를 현장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해당업소에 대한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 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 다른 제품에 물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해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예외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유상판매는 가능하다.

전북도는 변경되는 제도가 업주나 소비자에게 불편 없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현장 계도기간에 시군 및 관련단체와 홍보물(포스터)을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4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횡수 및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성 기자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활동

전북도는 영농폐기물 수거로 깨끗한 농촌지역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거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한기 2월까지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내역을 적극 홍보하는 등 영농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활동에 나섰다.

영농폐기물 분리배출과 폐비닐,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제도 등을 안내하고 리플릿 등을 배부 한다.

수거보상금은 폐농약용기류 1개당 100원, 폐비닐은 수거등급에 따라 kg당 100~80원을 수거보상비로 차등 지급된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장수군 공고 제2019-124호

동화천 하천기본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동화천 하천기본계획 제수립 및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14조, 15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전라북도 장수군

1. 계획의 내용
 - 과업명: 동화천 하천기본계획 제수립 및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계획
 - 위치: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백운리 ~ 신창리 오수천 합류점
 - 규모: 하천기본계획 L=5.0km(실시설계구간 L=4.5km 포함)
 - 계획수립기관: 장수군수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2019년 02월 07일 ~ 03월 07일(공휴일을 제외한 20일간, 09:00 ~ 18:00)
 - 공람장소: 장수군청(안전재난과), 산서면사무소(총무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tss.go.kr)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동화천 하천기본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3.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9. 2. 22(금) 10:00 산서면사무소 회의실
 - 내용: 동화천 하천기본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 청취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공람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기재하여 서면 제출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063-350-2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